

2013

11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 국정감사 수감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 워크숍 개최

인터뷰

이문열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소설가)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61호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 워크숍 개최
- 04 **인터뷰**
“소설은 존재를 스스로 표현하는 양식”
- 이문열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소설가)
- 07 **위원동정, 위원회 소식**
- 08 **인문학 산책**
권력자를 돌연 불행에 빠지게 하는 ‘하마르티아’
- 09 **신 동의보감**
다이어트 식이요법, 나이 따라 다르게 하세요.
- 10 **위원단상**
아직도 담배 피우시나요?
- 11 **마이힐링푸드테라피**
함흥 할마와 냉면
- 12 **또래조정**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하는 또래조정
- 13 **조정후기**
명백한 오보, 손해배상으로 직권 결정해
-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매체 시대, 언론중재위 지위와 여건 격상되어야”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

—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권성 위원장

● 위원회는 10월 21일 국회에서 2013년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국정감사는 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야 의원들은 ‘다매체 시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직 및 예산확대 필요성’,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오보로 인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정’ 등을 주문했다.

“ADR 선도 기구인 위원회의 제도와 경험을 접할 수있는 좋은 기회”

—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 워크숍 개최 —

● 위원회는 10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및 심사관 12명과 권성 위원장 및 박현재, 권일 위원 그리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에 앞서 가진 간담에서 정해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ADR기구로 자리잡았다.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제도와 경험 등을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위원회를 찾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및 심사관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위원회를 찾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간담을 나누는 권성 위원장

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올해 초 ADR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조정중재아카데미를 신설했다”며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상임조정위원과 심사관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담 후 위원회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제도 및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설득으로 본 조정의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이후 토론하는 시간을 갖졌다.

“소설은 존재를 스스로 표현하는 양식”

이문열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소설가)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중퇴
-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대한민국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동리문학상 수상
-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수훈장
- (현) 부악문원 대표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사람의 아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변경’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국민작가’, 우리 사회 부조리한 삶과 그 문제의식을 현란한 문체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이 시대의 이야기꾼 이문열을 만났다.

● ● 젊은 시절 좌절을 많이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요즘 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저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대부분이 힘들었다고 봐요. 다만 저는 아버지가 정치적 노선에 따라 월북하시면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고, 홀어머니와 5남매가 힘들게 살았지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16년을 배우는데 저는 8년을 학교를 못다녔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8년이란 시간을 따로 보낸 거지요. 집안의 막내라 생계를 책임져야할 위치는 아니기에 학교를 못 다니는 대신 일을 해야하는 처지는 아니었지요. 하루종일 빈둥거리면 되었지요. 그러다보니 혼자서 책 읽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만화나 잡지 등 닥치는대로 보다가 점차 소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설가가 된 것도 그 때 영향이 컸을 겁니다.

● ●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셨는데, 처음 문학에 눈을 뜨게 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학창 시절에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글을 잘 쓰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인들이 수사학을 연마했듯이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요. 18살때까지만 해도 문학을 하려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 때까지만 해도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한 책을 많이 접하면서 도구로서의 언어 감각을 키워나갔어요. 남다르게 수련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컵’을 소재로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거지요. 말의 대상력을 키우기 위해 별 의미없는 소재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감성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어요. 소설을 쓰기로 마음 먹은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입니다.

그럼에도 소설가로서 조금 늦은 나이에 입문을 했던 것은 비유하자면 몸에 잘 안 맞는 옷을 산거라고 보여져요. 돈도 없고 시간이 없어 급하게 옷을 걸쳤는데 안 맞아서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 옷도 안 맞아 다른 옷을 입다가 결국 소설가라는 옷을 제대로 찾아입은 것이지요(웃음).

●● 그동안 많은 작품을 써오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흔히들 그렇게 물어보면 가장 최근에 쓴 작품이 가장 애착이 간다고 답할 거예요. 그 이유는 가장 최근 작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작품으로 기억되기 때문이지요. 저도 근래에 같은 질문이 나오면 그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최근 ‘변경’(편집자 주 : 전 12권으로 1998년에 완간된 사회소설.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까지 우리 사회의 풍경을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작품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 2003년에 미국에 있을 때 절판을 했는데 ‘변경’을 다시 보고 싶다는 독자들도 있고 제가 40대 후반을 다 바쳤던 작품이라 애착이 갑니다. 앞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변경’이라고 답해야겠어요(웃음). 작품 양도 많고 힘들었지만 나름의 성숙함이 묻어나고 자전적 요소도 있고 진솔함도 있어 지금 읽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 이문열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바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 아닐까하는데요. 이 작품은 어떻게 탄생되었나요.

일종의 알레고리(Allegory) 소설이에요. 1980년대 저는 이렇다할 비판이나 저항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항변을 안한 이유는 당시 권력자가 단임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 호헌조치를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지요. 호헌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인데 저로서는 난처한 심정이었지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할 수 없었고 제 기분이랄까 표현하고 싶어 그 당시 상황을 소설로 작품화 한 것입니다.

●●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원치 않는 피해도 입고 때론 오해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지요.

2000년 초중반에 인터뷰를 할 때에는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인터뷰에서 한 말이 앞뒤가 잘리거나 한 마디만 부각시켜서 보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친일파’로 낙인찍히기도 했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동아 공영권’ 관련 보도였지요. 1990년대 초반에 유럽공동체(EU)나 나프타(NAFTA) 등 경제 공동체가 세계 각 지역에서 생겨나기 시작할 때 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 한중일 3국의 연륙제인 ‘베세토’가 있었어요. 그 때 동아일보, 인민일보, 아사히신문이 함께 주최한 회의에서 한국 문학 파트를 맡아 회의를 한 적

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이게 바로 대동아 공영권이 아니냐. 이렇게 3국이 모여서 다른 지역 공동체와 대응을 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이 80년 전에 3국 관계를 잘못 다뤄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아니냐.’고 발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앞 뒤 다 자르고 ‘이문열, 대동아 공영권 실패 아쉬워해’ 이런 식으로 기사화 되더라구요. 너무 어이없었지요.

●● 만약 소설가가 안되셨다면 지금쯤 어떤 일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보면 아마 어느 한 분야를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도 관심있는 분야라 정치도 하지 않았을까 싶구요. 정치는 잘하면 그 수혜 계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이라 하고자 하면 괜찮을 듯 해요. 다만 이번 생에는 운 때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정치를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소설이나 정치 모두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사람인 까닭입니다. 사람이 안 나오는 소설은 없습니다. 우화같은 것도 의인화된 동물이나 식물들이 나오지요. 소설은 사람 사는 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 소설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에게 정치를 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 지금까지 읽었던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평생 책을 읽고 쓰는 저같은 소설가에게는 특별히 가슴에 평생 남는 책을 이야기하라면 조금 난감합니다. 20대에 좋아했던 소설과 30대, 40대에 좋아하는 소설들이 다 다르거든요. 다만 최근 관심있게 즐겨보는 책은 ‘낯선 시각으로 돌아보기’가 가능한 책들입니다. 지난 학기 외대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어느 시대이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책이나 정신이 있어요.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시대정신이 바라보는 책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책을 선호하는 편이지요. 예를 들면 폴 존슨의 ‘모던타임즈’(편집자 주 : 20세기 세계사를 결정지은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다룬 책)라던가 막스 갈로의 ‘프랑스대혁명’(편집자 주 : 프랑스 혁명의 빛과 그림자를 해부한 책)과 같은 책입니다. 막스 갈로의 이 책은 프랑스혁명을 낯선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견해와는 다른 역사적 견해를 보여주는 책이지요.

● ● 소설가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소설가가 될 수 있는지 지망생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준비과정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설에서 스토리가 중요한 요소이고 스토리가 없으면 소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스토리 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지요. 음악, 연극, 미술에도 다 스토리가 있으니 소설이라면 언어의 미학적 질서라든가 감흥의 섬세한 묘사, 의식의 흐름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지요. 이를 안티 스토리 계열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설을 쓸건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소설을 쓰려면 통합 인문학적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순수하게 창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소설화해야 하지요. 또 하나 타인의 시선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만의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67여 작품이 16개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책은 무엇인지요.

번역물 성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못내고 있거든요. 성과를 못내서 기가 죽어있습니다(웃음). 저는 책을 내면 시장에서 문화상품으로서의 성과를 선호하는 편인데 노력 대비 결과는 변변치 못하네요. 제가 쓴 작품이 신통치 않아서 그럴겠지요. 국내 번역 수준은 상당한 경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요. 제가 쓴 작품 중에 그나마 성과가 있었던 작품은 ‘시인’(편집자 주 : 조선 후기 ‘김삿갓’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시인 김병연의 삶을 소설적으로 재구성한 장편소설)입니다. 12개 나라에 번역이 되어 재판까지 했어요. 그래도 성과는 미미합니다. 국내 소설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성공한 케이스는 신경숙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를 스토리텔링하면 반응이 좋았는데 서양에서는 1950년대 이미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깨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 합니다. 원래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하면 강화되는 것이 모계적 성향이지요.

● ● ‘부악문원’에 터 잡고 작품활동을 하신지 30년이 되어갑니다. 부악문원을 설립한 이유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악문원은 부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부아악산(負兒岳山)은 말 그대로 아이를 업은 모양의 산세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지요. 설봉산의 예

전 명칭이 부아악산입니다. 부악문원은 제가 받은 독자들의 관심으로 이론 경제적 성과를 후배 소설가 양성에 되돌린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어요. 책 읽을 수 있는 방 한 칸과 삼 시 세끼 해결해주면 될 듯해서 만들었지요. 그러다가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커리큘럼을 편성해서 참가토록 했지요. 문생과 객원이 있는데, 문생은 일정한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임의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객원은 커리큘럼에 참가할 필요없이 글을 쓰는 친구들인데, 지금은 객원들만 있습니다.

●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ADR)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 한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최근 10-20년 사이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다들 소통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소통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소통이고 자신의 말에 반대 하면 불통이라고 하지요. 커뮤니케이션 구도란 발신하고 교신하는 구도여야 하는데 일방적인 전달구조이지요.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교신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교신의 단절이 역사적으로 볼 때 더 악화되어 궁극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기도 해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때에도 교신이 안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 광기적인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우리 사회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메아리가 아니라 교신이 되도록 하는 것, 발신과 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이문열에게 ‘소설’이란 화두는 무엇입니까?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는 어렵게 세상을 살다가 드디어 내가 머물만한 섬을 찾았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설이라는 그 섬은 저를 위한 만족과 저의 기쁨을 위해 존재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작품을 써나갈 때마다 자꾸 변하네요. 지금은 소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양식으로까지 확장되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구조에 대해서도 발언하기 시작했구요. 지금 현재 제게 소설이란 ‘내 존재를 스스로 표현하는 양식’입니다.

COMMISSIONERS

케이블협회 주최 PP 광고활성화 방안 세미나 진행 말아



한은경 위원(서울제2중재부,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10월 15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개최한 '2013 PP 광고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았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 방송환경에 맞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체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



김명중 위원(광주중재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10월 16일 광주 동구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를 위한 열린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했다.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세미나 참여



남부희위원(경남중재부, 경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양산 에덴밸리리조트에서 열린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13 우선 선정사 세미나'에 참석했다.

위원회 소식

NEWS

대구 대서중 또래조정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10월 7일 대구 대서중학교 또래조정반 학생 70여명이 위원회를 방문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위원회를 방문한 학생들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위원회 심리실을 견학한

후 또래조정에 대한 간담을 가졌다.

또한 10월 4일에는 서울 연중중학교 영자신문 제작 동아리 학생 25명이 위원회를 방문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진기자 대상 초상권 보호 관련 교육 실시



위원회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프레스센터에서 사진기자 대상 연속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 사진기자협회 회원 및 각 언론사 사진기자 25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속교육은 초상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함석천 성남지원 부장판사, 유익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그리고 정준영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함석천 성남지원 부장판사, 유익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그리고 정준영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제3차 공무원 연속교육, 언론브리핑 실습 등 실무 능력 배양 기회 가져



위원회는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시청 및 서울시 각 구청 공무원 약 20여명을 대상으로 제3차 공무원 연속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실습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

응을 얻었다. 실제 기사를 대상으로 브리핑하는 상황을 가정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브리핑을 했으며 촬영된 브리핑장면을 보면서 강평을 들었다.

위원회는 11월 14일과 15일에 공공기관 공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속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재규 기획팀장, 한국기자협회 세미나에서 강연



양재규 기획팀장은 9월 27일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다. 전국 주요 신문·방송 사회부 사건기자 50여명이 참석해 '인격권 보호와 자살 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

에서 양 팀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명분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력자를 돌연 불행에 빠지게 하는 ‘하마르티아’

최효찬
칼럼니스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 주인공의 운명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비행(非行)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마르티아(Hamartia)’에 있어야 한다. 비극의 주인공은 악덕이나 비행 때문이 아니라 하마르티아 때문에 행복한 삶이 불행을 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래 하마르티아는 궁술에서 나온 것으로 과녁에서 빗나간 것, 표적을 빗맞힌 것을 뜻한다. 여기서 하마르티아는 판단착오에서 비롯한 적극적인 죄악부터 단순한 실수나 과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하마르티아는 우연적이고 비이성적인 불행에 아무 이유 없이 내던져지는 인간의 운명에도 적용된다. 이 하마르티아는 카타르시스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가장 완벽한 비극작품으로 보았는데, 주인공이 겪는 하마르티아의 예로 오이디푸스 왕을 든다. 고대 그리스 비극을 대표하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의 왕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눈마저 찌르는 한 인간의 운명을 노래한다.



테베를 떠나는 오이디푸스를 안내하는 안티고네

이 비극은 테베에 신의 노여움으로 전염병이 창궐해 재앙에 빠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오이디푸스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싸운다. 델포이의 신탁은 페스트라는 재앙이 테베에 내린 것은 이 도시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욕보임으로써 신들의 분노를 산 사나이(오이디푸스)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땅에서 생기고 키워진 더러운 일이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씻어 없애라”고 오이디푸스에게 말한다. 더러운 일은 바로 오이디푸스의 친부살해와 친모와의 결혼이다.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재앙을 유발한 이 사나이를 찾는 데에 전심전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는 그 ‘사나이’가 정작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한다. 즉 오이디푸스가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이고 어머니 이오크스테와 결혼했는데 이게 바로 중대한 과실, 즉 하마르티아에 해당한다.

연극의 끝부분에서 결국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찌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이디푸스는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

게 된다. 즉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이었을 때 그는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 눈먼자가 되고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이었다. 한때 모든 권력과 행복을 소유한 오이디푸스는 이제 불행만이 그를 기다리는 그야말로 참혹한 운명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노스롭 프라이는 ‘비평의 해부’에서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 대부분이 히브리스(hybris)에 빠진다고 한다. 히브리스는 오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권력을 가진 비극의 주인공들은 히브리스로 인해 판단착오, 즉 하마르티아에 빠지고 파국을 초래하는 동인이 된다는 것이다. 오만(히브리스)은 판단착오(하마르티아)를 불러오고 결국 가장 행복한 인간에서 가장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오이디푸스가 겪는 오만으로 인한 추락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불행한 주인공들을 수없이 목도할 수 있을 게다.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간 권력층들의 스캔들에서 보듯이 특히 권력을 소유한 이들에게 더 자주 히브리스로 인한 판단착오로 추락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권력의 의지가 오만을 부추기고 판단착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권력자든 아니든 누구나 인간인 이상 판단착오를 할 수 있고 이게 뜻하지 않게 거대한 운명의 바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어찌면 비극의 주인공이요, 주인공이 겪는 하마르티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오이디푸스 왕의 하마르티아와 비극적 운명은 단지 비극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어찌면 ‘지금-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운명의 비극’을 경계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다이어트 식이요법, 나이 따라 다르게 하세요.



김현성
국립서울병원 내과 과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서도 건강하고, 거기에다 날씬한 체형까지 가지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일 것이지만 그럴 수 없어서 우리는 고민스럽다. 결국 세 가지 중 가장 원하는 순서에 따라 개인의 식생활이 정해지겠지만 조금 더 효과적인 조절을 위해 연령대별 강조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10~20대 이 시기는 계속되는 성장기로 세포분열을 위한 재료가 필요하므로 에너지 소모량보다 섭취량이 많아야 남는 영양분이 세포 분열을 하여 몸을 키우는데 쓰일 수 있다. 따라서 폭풍 성장기를 거치는 사춘기 전후는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칼슘, 철분 등의 미네랄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햄버거나 피자 등의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고열량의 필요를 채우는 것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해야 하는 시기이며 실제로 비만한 것이 아니면 본격적인 다이어트는 성장이 끝난 뒤에 하기를 권한다. 날씬한 몸을 원한다면 기초대사량을 늘여야 한다. 기초대사량이란 신체의 활동 없이 현재의 몸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로 골격이 크거나 근육이 많은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많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다. 근육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힘들게 근육을 쓰는 근력강화 운동이 필요하다.

30~40대는 신체 성장이 끝나고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에너지 소모량과 섭취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거나 사회 생활이 바빠지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한 관심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기이다. 전보다 일은 많이 하지만 활동량은 줄어들고 회식이나 음주 등으로 인해 점차 뱃살이 쌓여 가면서 복부 비만으로 상징되는 성인병, 즉 대사증후군이 시작된다. 음식 속 영양소 중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몸 안에서 서로 교환되며 에너지 공급과 세포 구성, 그리고 저장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이들의 양은 곧 체중을 반영한다. 반면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결핍시에 특정 질병을 초래하지만 체중과는 관련이 없으며, 일상적인 식이에서는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밥과 고기, 술 등의 양을 줄이고 운동을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만이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있다면 음식을 싱겁게 먹고 일당 체중을 5Kg 정도 감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식이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 같은 특정 질병이 없다면 비만한 사람의 다이어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매끼 식사 조절을 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해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은 열정적이고 속이 시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과 실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체 건강이 원하는 만큼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50대 이후는 노화가 빨라지며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점차로 위축되고 감소해서 노인의 체형으로 변해 간다. 스스로도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의 질을 따지고 특정 음식에 가장 관심이 가는 시기이다. 암 예방에 도움이 되거나 노화를 더디게 하는 항산화 음식 등을 찾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된 것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특정 음식과의 관련성은 매우 미약하다. 그보다는 과음이나 담배 같은 명백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시기는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전부터 해 온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피하고 규칙적인 식생활로 몸을 지켜야 한다. 식사는 여러 번에 나누어 소량씩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복부 비만을 줄이는 데도 더 효과적이다. 의학적으로는 마른 체형보다는 아주 조금 과체중이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하며 오래 사는데 더 좋다.



아직도 담배 피우시나요?



이영원 위원
전북중재부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몇 년 전 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가 키 180센티미터 이하의 남자를 루저(loser)라 칭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상형의 남자를 언급하던 중 나온 얘기로 여자는 얼굴, 남자는 키가 평가의 기본 잣대라는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이후에도 외모의 사회적 경쟁력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헌데, 외모가 개인이 갖는 경쟁력의 하나라면 사회가 갖는 경쟁력은 무엇일까.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가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 제도 등 구조적인 건전함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건강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흡연이다. 대체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흡연율이 높다거나 흡연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흡연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는 언론 보도에서 넘쳐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23%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흡연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러한 수치는 서울이라는 도시 지역의 통계치로 농촌 지역 등 지방의 흡연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의 흡연율은 줄어드는 반면 여성의 흡연율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스트레스나 습관 때문에 흡연을 하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들 중 여성 흡연자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다이어트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나 요즘처럼 젊은 여성들의 44 사이즈에 대한 열망이 높은 분위기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면 해로운지 알면서도 흡연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은 대부분 습관성이기 때문에 술이나 커피 등과 같이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나 담배의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고집하는 성향이 타 제품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흡연과 같은 습관성 행동이나 특정 브랜드의 담배를 선호하는 것 등은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설득 효과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흔히 설득 과정을 세 종류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대상(사람이나 사물 등)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 가는 태도 형성 과정, 기존에 갖고 있는 태도를 유지, 강화시키는 과정, 마지막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가장 힘든 설득 과정은 역시나 마지막 유형의 태도 변화이다. 설득 과정에서 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태도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태도와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태도에 따라 행동이 이어지게 된다.

흡연자의 경우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흡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흡연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처음 담배를 핀 시기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요즘에는 최초 흡연 연령대가 좀

더 낮아지고 있지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정 기간 유지해 온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어 금연운동에 동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에서는 금연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흡연 경험을 하기 전인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즉, 흡연자들에게 금연이라는 기존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보다 흡연에 대한 태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알려줌으로써 흡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큰 설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내 뿐 아니라 이제는 건물 밖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요즘 흡연자들의 위상을 보면서, 내 돈 들여 초라해지고, 간접흡연으로 공공의 적이 되느니 이참에 과감히 금연이라는 태도 변화로 건강 사회에 일조하는 것은 어떨까. 혹시 지금도 담배를 물고 계신 건 아니지요?

함흥 할마리와 냉면



남 승균
대전사무소장

짐 정리를 하다가 예전 사진첩을 발견했다. 두툼한 인화지의 새삼스런 감촉에 정리를 잠시 미루었다. 사진들을 넘기다보니 몇 해 전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 있었다. 냉면을 좋아하시던 할머니와 함께 오장동 함흥냉면집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함흥이 고향이었던 할머니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때 영하 40도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미 군선 메리디스 호를 타고 고향을 떠나오셨다. 당시 수송된 민간인들은 거제도로 보내졌는데, 할머니는 통일이 되면 다시 함흥으로 돌아가실 생각으로 휴전 후 춘천에 새 터전을 마련하셨다.

원래 이남에서 함흥냉면의 원조는 속초라고 한다. 이북 사람들이 함흥에서 가까운 속초에 자리 잡으면서 냉면집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면을 먹으러 가기에 춘천에서 속초는 너무 멀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냉면이 생각나면 서울 오장동을 찾으시곤 했다.

오장동에는 지금도 흥남집, 오장동 함흥냉면, 신창면옥 세 업소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할머니는 함흥 탈출의 동지이신 ‘형님’ 할머니와 종종 냉면 나들이를 다니셨다. 그런데 두 분은 서울까지 기껏 함께 오시고도 냉면은 따로 드셨다. 형님 할머니의 단골집은 흥남집이었지만 할머니는 오장동 함흥냉면집만 가셨다. 냉면집 주인 할머니와 거제도에서부터 친분이 있으셨던 모양이었다.

“형님 우이 그 집만 가시오?” “흥남집 상기 아이 가오?” 맛에 대한 견해 차이로 늘 티격태격 하셨지만, 그래도 그건 즐거운 추억이셨으리라.

30년 전 내가 처음 맛보았던 냉면은 지금과 달리 엄청나게 매웠다. 면은 또 얼마나 역세었는지, 아랫입술을 도마삼아 꿇고 또 꿇어 내야 했다. 하지만 함흥냉면의 박력 넘치던 그 맛은, 포성 가득한 흑한의 바다와 그보다 더 거친 인생의 바다를 넘어야했을 사람들에게 삶과 공명하는 위로였을 것이다.

한갑이 넘어서도 한겨울 대청봉을 오르시던 할머니는 허리 수술을 잘못 받으시고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지셨다. 다행히 몇 년 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실 수는 있었지만, 냉면을 드시러 오시지 못했다. 가끔 면만 따로 사다드리기도 했지만, 집에서는 가자미식해나 육수를 만들기 어려웠다. 특히 육수가 문제였다. 함흥냉면도 원래는 육수를 넣어 먹기 때문에 육수의 맛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장동 함흥냉면집의 육수는 반출이 되지 않는다.

함흥 아미의 역세었던 뼈마디도 시간의 무게에 점점 휘어지고 있었다. 그 날, 무리인 줄 알면서도 할머니에게 냉면을 드시러 가자고 했다. 손자 힘들까봐 안 간다고 하시다가 재차 권하니 느린 걸음을 재촉하며 지팡이를 짚고 나서신다.

점심시간이 지났건만, 줄을 서서 기다렸다. 할머니의 거칠고 두툼한 손을 닮았던 함흥냉면은 슈트를 차려입은 도시 젊은이의 허리춤처럼 매끈하고 날렵해졌다. 문득 30년 전 아홉 살 어린 형가 감당해내기 어려웠던 그 티프함이 그리워졌다. 하지만 냉면이 나오자 할머니의 입가엔 웃음이 가득하다. 달라진 맛이려면, 맛있게 드신다.

춘천에 가져가실 면을 따로 주문하면서, 육수를 줄 수 있는지 넌지시 물어보았다. 냉면 면발처럼 머리가 희끗해지기 시작한 주인 할머니의 머느리는 무언가 짐작했던지, 아무 말 없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맣소, 잘 계시오.” 할머니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시고 냉면집을 나셨다. 햇살이 오후로 누엿 스며들기 시작하던 어느 가을의 아무렇지 않은 오후였다. 그 모습이 사진 속에 어제인 듯 남아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하는 또래조정

김정민
수시교육팀



“아야! 너 일부터 그랬지?”

선혜(가명)는 체육시간이 끝난 후 배가 너무 고파 교실로 뛰어가다 같은 반 친구 소희(가명)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얼마 전에도 소희가 복도에서 갑자기 등을 밀어 넘어질 뻔 했는데 오늘도 이런 장난을 치다니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선혜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희와 말다툼을 벌였다.

또래조정이란 위와 같이 학생들 사이에서 평소 일어나는 갈등을 또래나 선배가 조정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1980년대 미국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래조정(Peer Mediation)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또래조정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학교폭력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79개 학교가 또래조정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또래조정은 학생들간 갈등이 누적, 방치되어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조정 과정을 통해 대화와 타협, 설득의 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한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도 연간 82조에서 2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높은 데는 여러가지 사회적 원인이 있겠지만 대화나 토론, 설득이나 협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문화가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학교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법,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힌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부터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체험해보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며, 올해 초에는 ‘조정중재 아카데미(<http://edu.pac.or.kr>)’를 개설하여 사회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촉진하는 조정·중재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또래조정 문화의 확산을 위해 10월부터는 또래조정 협력학교(창덕여중, 덕성여중)를 대상으로 또래조정 관련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모의 또래조정 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또래조정이 각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아무쪼록 위원회와 함께 하는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평화로운 갈등 해결문화를 실생활에서 체득해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명백한 오보, 손해배상으로 직권 결정해

박은영
조사팀
(서울제8중재부 조사관)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가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에 배당된 사건들은 대부분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낱씨보도 등에 사용된 단순 초상권 침해 사건부터 동의 없이 공개된 음성권 침해 사건 등 명약관화하게 언론사의 과실로 발생한 보도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올해 7월 이후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는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 외에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등도 배당받아 처리하기 시작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게재 또는 기사 삭제 등으로 조정이 이뤄지면 손해배상청구는 신청인이 취하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한 시사주간지는 어느 기업체에서 작성한 명절 선물 리스트를 보도하면서 해당 기업의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선물 리스트의 대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기업체 대표인 신청인은 보도된 리스트 중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된 리스트는 기업 대표가 관례적으로 명절 때 외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정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심리가 시작되고 피신청인측은 신청인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순 실수'라는 이유로 정정보도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마치 대가를 바라고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청탁을 한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양당사자 간 입장차가 있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지만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절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재부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들은 이의신청을 했고 현재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중재부가 명백한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 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결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한 일간지가 경찰 간부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제때 음식값을 내지 않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보도한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 간부인 신청인은 부적절한 외상은 없었으며 보도가 나기 전 다른 기자들에게 해당 영수증을 확인시켰고, 식당 주인에 대해 관내 경찰이 조사 중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조정심리가 시작되었지만 피신청인측은 반론보도 외에는 정정보다나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신청인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취재기자에게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줬음에도 마치 신청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처럼 보도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크고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재부는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최근 해당 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동의하면서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은 조정의 단계에서 잘 마무리되었다.

앞으로도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뿐 아니라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분쟁을 마무리 하려는 신청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언론사들도 취재시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보도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국사편찬위원인 신청인의 강연 내용을 왜곡한 보도, 정정보도 게재**

A뉴스통신사는 국사편찬위원인 B교수가 새누리당 C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모임 초청강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제시대에 대해 '수탈과 개발이 병존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연을 했던 B교수는 '일제시대에 수탈과 개발이 병존했다'는 말은 경제성장 사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었고 B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제가 근대화 주체로 서술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조정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심리 전 신청인과 사전 협의해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 초상권 사례 | **취업 관련 부정적 기사에 동의없이 초상을 촬영·보도, 해당 언론사 연대해 250만원 배상**

D인터넷신문과 E뉴스통신사는 이력서 사진이 너무 잘 나와도 취업에 불리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증명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촬영·보도했고, 신청인과 전혀 무관한 부정적 기사의 주인공처럼 게재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사진에 대해 모욕적인 댓글이 게재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 게재한 것에 대해 심리 중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연대하여 2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동기 _ 적은 쪽수에 알찬 내용으로 지가(紙價)를 올리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 사람' 사보 중 인본주의를 영상에 담은 임권택 감독님의 인터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진솔한 내용에 감명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편의 작품 중 반 이상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보릿고개 시절에 진정한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점도 이해가 되었고, 그나마 그가 기억에 남은 작품을 내세운다면 서편제와 취화선을 꼽았는데, 두 작품 모두 가장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판소리와 서민 취객 화가의 애환을 그린 작품으로 관람해서 그런지 수궁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점인 양극화 현상에서 가치 중립적 사고로 우리네 사는 인생사를 투영하는 양질의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니 기대 할 만 합니다.

주규배 _ 모든 이야기가 유익했지만 그 중 신 동의보감 '치주질환예방, 장수와 웰빙의 지름길'편이 재미있어서 몇 번씩 읽었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치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귀찮아서 대충대충 치료를 하고 별것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치아관리가 중요한줄 미처 몰랐습니다. 특히 염증이 심하면 치아를 뽑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하네요. 가정에서 이를 잘 닦기,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받기 등 등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데에 많은 공감을 느끼며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여 건강한 치아와 함께 건강하게 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이춘성 _ 인문학산책을 보면서 흔히 점치는 복서(卜書)로 알려진 주역은 갑골문으로부터 시작된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철학의 정수로 공자의 위편삼절에서도 알 수 있듯 많은 이들이 그 해석과 이해를 위해 애썼고 우리 조상들은 너무 어린 나이, 즉 10대엔 보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운명론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하는 삶만이 진정한 자신의 삶이란 뜻이 오히려 길흉화복을 알려준다는 이 책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선택은 자신의 몫이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인 대상 공개 강좌

언론피해 예방 및 ADR(대체적분쟁해결)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아카데미가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개강좌를
마련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차 | 2013. 11. 26. 화

15:00 ~ 16:20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유형 및 대처방안
16:30 ~ 18:00 | 갈등해결의 새로운 접근방법 ADR

2차 | 2013. 12. 10. 화

15:00 ~ 16:20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유형 및 대처방안
16:30 ~ 18:00 | 갈등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 교육장소 : 언론중재위원회 강의실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11층)
- 교육신청 및 문의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02-397-3063/309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edu.pac.or.kr>)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지혜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
Persuasion & Rhetoric Report』가
개편 발간되었습니다.

설득기법과 조정전략

조정에 필요한 설득의 주요 법칙들을 무엇인가? 설득적인 말하기 기법,
분쟁 당사자를 대하는 적절한 태도, 설득을 위한 환경조성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영화, 고전 등에 나타난 갈등해결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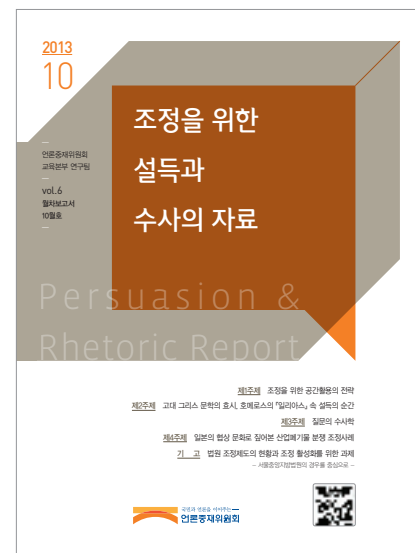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은 어떻게 분쟁을 슬기롭게 이겨냈을까?
역사 속 위인들의 결단과 화해를 위한 노력은 어떠했을까?
동서고금의 설득의 장면에서 오늘날 조정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수사학 이론과 조정

동·서양 철학자, 사상가들의 설득 및 수사 이론을 조정 현장의 설득 상황에
비추어 분석, 연구한다.

각국의 ADR 사례와 제도 소개

세계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의 ADR의 태동 배경과 동향, 주요 ADR 사례 및
시사점을 짚어본다.



- 언론중재위원회 발간 (격월간)
- 정 가 : 5,000원 (정기구독 : 연 30,000원)